

서평 『코즈모폴리타니즘과 종교』

우주에 속한 세계시민으로



강남순 저
서울갈동러스

#1

작년 말 중동 난민 문제가 세계적인 이슈로 대두된 가운데 테러단체 ISIS가 공작원들을 난민으로 위장시켜 서구 여러 국가에 잡입시키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미국 내에서도 중동 국가로부터의 난민, 특히 무슬림 난민의 입국을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특히 공화당 대선 주자 중 하나인 도널드 트럼프는 모든 무슬림 난민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미국 50개 주 가운데 30여개 주의 주지사들은 자신들의 주에 시리아 난민들이 정착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어떤 정치인들은 중동 난민들 가운데 기독교인들만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현재 공화당 후보들 가운데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특히 미 남부 지역의 많은 복음주의 기독교인들로부터 지지를 얻고 있다.

#2

지인으로부터 <기독교인의 긴급 기도제목>이라는 제목의 카톡 문자를 받았다. 본인이 직접 쓴 것은 아니고 아마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해 받은 것 같았다. 제법 길어서 여기 다 인용하지는 못하지만 대강 내용은 이렇다. 전라북도의 한 도시에 이슬람 할랄 식품 공장이 들어설 예정인데, 이것은 단순히 공장을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해외에 있는 무슬림들을 데려와서 대한민국을 이슬람화하려는 계획이며, 이슬람은 여성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종교이니 이 계획이 현실화되면 대한민국 여성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슬람화되면 우리도 프랑스 파리처럼 무슬림 테러분자들의 공격대상이 될 것이기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기독교인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것과 이 소식을 널리 알릴것을 당부하며 메시지는 끝을 맺는다.

위에 소개한 두 가지 사건을 통해 민족주의, 세계화, 분쟁, 그리고 종교의 관계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던 차에 <코즈모폴리타니즘과 종교>라는 책의 서평을 부탁받고 호기심과 기대를 가지고 책을 읽었다. 책의 부제는 “21세기 영구적 평화를 찾아서”이다. 저자인 강남순 교수는 미국 텍사스크리스천 대학교 브라이트 신학대학원에서 포스트모더니즘, 포스트콜로리얼리즘, 페미니즘, 코즈모폴리타니즘과 같은 현대 철학/신학 담론들을 가르치는 신학자인데, 2007년 한 학술회의를 통해 코즈모폴리타니즘을 처음 접한 이후 계속해서 이 주제를 연구해오고 있으며 2013년에는 거의 최초로 코즈모폴리타니즘을 신학적인 관점에서 조명한 영문 저작을 출간한 바 있다. 『코즈모폴리타니즘과 종교』는 보다 대중적인 언어를 통해 한국 독자들과 소통하려는 시도로 원래 <기독교 사상>에 7회에 걸쳐 연재되었던 글들을 모은 것이다.

책은 모두 8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서론에 해당하는 1장과 2장에서 저자는 코즈모폴리타니즘의 의미

와 특성, 가치에 대해 논하고 코즈모폴리타니즘에 대해 사람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오해를 다룬다. 흔히 “세계시민주의”로 번역되는 코즈모폴리타니즘을 저자는 한 줄로 정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신이 이야기하는 코즈모폴리타니즘은 경제적, 문화적 개념이 아닌 정치적이고 도덕적인 개념임을 분명히 한다. 그것은 어느 한 국가의 시민으로서만이 아니라 ‘인류’라는 보편적 공동체의 일원으로 스스로를 인식하는 것이며 국가의 경계를 넘어 연대와 연민, 책임 의식과 돌봄 의식을 확장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저자는 이런 물음으로 1장을 시작한다. “자신이 태어난 나라에 속한 한 국민으로서만이 아니라, 우주에 속한 ‘세계시민’이라는 의식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자연스러운 사실로 자리 잡을 때 세계는 어떻게 달라질까? (p. 17)” 이 질문은 아직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코즈모폴리타니즘은 하나의 이상에 지나지 않음을 인정하는 동시에, 그 이상을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나가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음을 주장한다. 그래서 저자는 불가능성과 무조건성의 영역으로서의 ‘코즈모폴리타니즘의 윤리’와 가능성과 조건성의 영역으로



신찬웅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학부, 대학원에서 국제정치학을 전공하고 미 시라큐스 대학에서 복음주의 기독교가 미국 외교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3년부터 미 인디애나 웨슬리안 대학(Indiana Wesleyan University)에서 국제정치학을 가르치고 있으며, 국제관계의 여러 문제들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가르치고 실천하는 일에 관심이 있다.

서의 ‘코즈모폴리타니즘의 정치’를 이야기하며, 두 공간 사이의 거리를 좁혀가는 것이 우리의 ‘예언자적 사명’임을 역설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저자가 말하는 코즈모폴리타니즘은 1) 거시적-상호의존성의 원리, 2) 우주적 환대와 책임성의 원리, 3) 초경계성(trans-boundaryness)의 원리, 그리고 4) 초정체성(trans-identity)의 정치학, 이 네 가지 원리에 바탕을 둔다. 그리고 이 원리들은 코즈모폴리타니즘을 수용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가치를 지향하게 하는데, 1) 개방적 민족주의, 2) 인권의 개념 확장, 3) 지구적 정의, 4) 세계의 영구적 평화 그리고 5) 지구적 공동체가 그것이다. 저자는 코즈모폴리타니즘이 민족주의와 반드시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전자가 단순히 철학적인 이론을 넘어서 실천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거듭 강조한다.

책의 두 번째 부분인 3장에서 5장까지는 코즈모폴리타니즘의 다양한 사조를 논하는데 스토아주의 코즈모폴리타니즘, 칸트주의 코즈모폴리타니즘, 그리고 기독교 코즈모폴리타니즘이 각각 어떻게 현대 코즈모폴리타니즘의 형성에 기여했는지 밝힌다. 마지막 6, 7, 8장은 사실상 이 책의 핵심으로서 코즈모폴리타니즘이 환대 (hospitality), 이웃 사랑, 그리고 종교 이 세 가지 주제의 이해와 실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심도있게 논의한다. 6장에서 저자는 프랑스 철학자인 자크 데리다의 논의를 빌어 코즈모폴리탄 환대를 논하는데,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상대적 환대’와 ‘절대적 환대’의 구분이다. 상대적 환대는 ‘초대의 환대’로서 주인이 권력을 가지고 환대의 대상과 범주를 결정하는 ‘조건적 환대’이다. 이에 반해 절대적 환대는 ‘방문의 환대’로서 예상하지 못한 방문자를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맞이하고 환영하는 ‘

무조건적 환대’이다. 이러한 무조건적 환대를, 그것도 전혀 모르는 이방인에게 베푸는 일이 참으로 쉽지 않음은 너무나 자명하지만, 그것이야말로 바로 성경이 말하는 바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과 사역을 통해 실천적으로 보여준 환대의 모습이라고 저자는 주장한다.

코즈모폴리타니즘의 관점에서 이웃 사랑을 논하는 7장은 “내가 나의 신을 사랑할 때, 나는 무엇을 사랑하는가”라는 어거스틴의 질문을 통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결국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환기시키는 것으로 시작한다. (저자는 ‘하나님’ 대신에 ‘신’이라는 용어를 줄곧 사용한다.) 저자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최후의 심판’ 이야기 역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다른 것이 아님을 보여 줄 뿐만 아니라, 이웃의 범위가 같은 국가나 종교에 속한 사람만이 아니라 소외되고 고통받는 모든 사람에까지 확대되어야 함을 가르친다고 말한다. 이 점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도 분명히 드러나는데, 결국 이방인과 원수까지도 이웃을 삼으라고 한 예수의 가르침은 저자가 말하는 코즈모폴리타니즘에 기반한 이웃 사랑의 극치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저자는 한나 아렌트, 미셸 푸코, 조르조 아감벤 같은 현대 철학자들의 논의를 통해 우리 주위에 살아 있지만 죽은 것과 같은, 곧 모든 권리를 박탈당하고 얼굴 없는 비존재들로 살아가는 소수자들에게 생명과 희망을 주는 것이 진정한 이웃 사랑이라고 역설한다. (예를 들어 나치 시대의 유대인, 집시, 동성애자, 장애인들, 그리고 현대의 불법 이주자, 난민 등이 이러한 부류에 포함된다.)

이러한 급진적인 이웃 사랑의 개념이 6장에서 언급한 무조건적인 환대와 더불어 매우 복잡한 제도적, 정치적 함의를 가짐은 그리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저자도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하면

서, 사회정치적 차원을 등한시하는 '탈정치화'된 환대와 이웃 사랑은 불완전함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의해 이웃이 아닌 것으로 규정될 때, 우리는 그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 글의 서두에 언급한 사례들에서 볼 수 있듯이 이것은 더 이상 가정에 근거한 질문이 아니다. 테러범일지도 모르는 난민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가? 여성의 권리를 침해하는 듯이 보이는 관습과 법을 우리는 종교의 자



유라는 이름으로 허용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은 이미 미국과 한국을 넘어 세계 여러 나라의 기독교인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씨름해야 하는 현실의 문제이다. 물론 저자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다만 우리가 코즈모폴리타니즘의 정치와 윤리, 현실과 이상, 가능성과 불가능성 사이의 거리에 민감하면서 그 둘 사이의 간격을 좁혀 나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기를 독려할 뿐이다. 왜냐하면 저자가 보기에 이런 '불가능한 세계의 비전'에 자신을 바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종교인이기 때문이다.

참으로 시급하고도 중요한 문제에 대해 진지한 성찰을 요구하고 또 대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코즈모폴리타니즘과 종교』는 의미있는 책이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저자가 제도화된 기독교에 대해 일관되게 보이는 부정적인 시각이

다. 저자는 제도화된 교회가 예수와 성서의 가르침을 왜곡시켜왔고 역사적으로 많은 악을 저질렀음을 지적한다. 그래서 성경본문을 인용할 때도 기존의 한글 성서번역을 따르지 않고 본인이 직접 번역하여 인용하며, '하나님' 대신에 '신'이라는 단어를 줄곧 사용한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성경의 메시지들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물론 교회가 역사적으로 저질러 온 과오를 감추거나 축소시키고 싶은 생각

은 없다. 그리고 현재에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맹목적인 애국주의와 민족주의, 개교회 중심주의, 그리고 물질 숭배 사상에 빠져 참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교회가 유일한 희망이라고 믿는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진정한 코즈모폴리타니즘 실천의 예로 적십자 운동이나 국경없는 의사회를 언급하지만, 역사적으로 또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알게 모르게 참 환대와 이웃 사랑, 정의를 실천하고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 교회, 그리고 기독교 단체들이 있다. 저자도 인정하는 것처럼 특정 지역, 특정 공동체에 뿌리내리지 않은 코즈모폴리타니즘은 자칫 공허하고 무기력해질 수 있다. 이 땅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말씀과 교회에 더욱 깊이 뿌리 내려 국경을 초월한 이웃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기를 소망해 본다. ☺